

‘함께가는 친구’ 주제로 광주시, 중국문화주간 개최

26일까지 한중노래대회·미술교류전·청년포럼 등 다채 차이나센터서 개막식...자매도시 창즈시 특별공연 등 강기정 시장 “경제·관광 등 다양한 교류로 이어지길”

광주시(시장 강기정)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를 ‘광주중국문화주간’으로 정해 ‘함께 가는 친구(朋友一生一起走)’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연다.

시는 지난 20일 서구 광주차이나센터에서 ‘제10회 광주중국문화주간’을 개막했다.

이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이 후원하며,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광주와 중국 간 우정을 기린다.

광주중국문화주간에는 요리시식, 카빙, 공예 등 한중문화체험과 언어문화경진대회, 사진공모전, 한중미술교류전, 한중청년포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영상콘테스트 등 교류행사가 풍성하다.

20일 오후 개막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꾸칭지 주광주중국총영사를 비롯해 쉰리유린 창즈시 인민정부 선전부장 등 자매도시 관계자들과 재광 중국인, 유학생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국문화주간은 광주와 중국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자 문화소통 창구이다. 중국 문화주간 덕분에 광주시민과 중국인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었다”며 “중국문화주간을 통해 축적한 10년의 문화교류가 경제·관광·산업 등 다양한 교류로 뻗어가기에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개막행사에는 중국문화주간 1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 자매도시인 중국 산시성 창즈(長治)시의 문화예술단과 허난성 소림사

무술단이 광주를 방문해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창즈시 문화예술단은 중국 전통 경극 공연을 통해 중국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광주에 소개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허난성 소림사 본원 소속의 무술 고수들이 원숭이전통권법, 당랑권 등 다채로운 무술 시연을 펼쳤다.

21일에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 한중노래대회, 상식퀴즈 등 언어문화경진대회가 열렸다.

23일부터는 3주간 광주차이나센터에서 회화·서예 등 한중미술작품 60여점을 전시하는 한중미술교류전을 만날 수 있다.

또 재광 중국인을 대상으로 ‘내가 본 광주’ 사진공모전이 26일까지 열리며, 25일에는 한중청년포럼을 통



광주시는 지난 20일 서구 광주차이나센터에서 ‘제10회 광주중국문화주간’을 개막했다. 이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이 후원하며,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광주와 중국 간 우정을 기린다. /광주시 제공

해 양국의 예술과 청년들의 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 시민과 중국인들이 함께 소통하며 양국 간의 우정을 다지는 한편 문화 교류를 넘어 경제,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차이나센터 (062-367-66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광양농협, 수도작(벼) 대표농가 워크숍 갖고 수매 준비 마쳐...27일부터 수매 본격 시작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이 지난 20일 관내 수도작 대표농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곡 수매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수도작 대표농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산 산물벼의 수매 일정 및 계획을 설명하고 원활한 수매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수매준비를 마친 광양농협은 9월 27일부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본격적으로 산물벼 수매에 돌입하며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매를 위해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여

수확기 종료 시까지 수매를 진행할 계획이고 수매통을 무상 지원하는 등 농가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확기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벼멸구, 흑명나방(똥뜰이), 백엽고, 깨서무늬병 등 병해충이 다수 발생되어 이에 대한 방제 등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고 미질 저하에 영향을 주는 등의 등급의 벼는 차등 수매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광양농협은 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8

월 29일 햅쌀 출시를 시작으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및 광양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허순구 조합장은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확의 결실을 맺은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의 쌀값 하락과 재고 증가 등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농가 소득 증대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수매현장의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문수 기자

